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영광

누가복음 5:27-32

요절: 5:27-28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안녕하세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보고 경험할 영광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그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걷게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레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심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레위가 죄사함받고 변화되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삶을 바꾸셨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온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창녀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압제적인 로마 제국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민족 반역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는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세리는 수입이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아마도 레위는 가난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추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는 열심히 공부하여 로마 제국의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는 매일 12시간 이상 일했고, 많은 돈을 벌었으며, 수영장이 있는 맨션을 사고, 테슬라 로드스터를 몰며, 멋진 여자와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의 백성은 그를 거부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무의미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는 세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세상의 꿈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순간 레위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긍휼과 소망의 눈으로 세관에 앉아 있는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외로움과 슬픔과 상처와 혼란스러운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Twitter나 Instagram 또는 Tik Tok에서 처럼 예수님을 따르라는 레위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레위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라고 도전하고 계셨습니다.

삶의 방향은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쾌락과 우리 자신의 꿈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점점 이기적이고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쓸모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은혜와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미래는 의미 있고 열매 맺으며 희망적일 것입니다.

레위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삶의 참된 의미와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중에 그는 마태복음을 쓴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레위는 자신의 기쁨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는 바베큐를 요리하고 고급 와인들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큰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레위는 많은 돈을 썼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손해의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레위의 변화된 삶에 놀랐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잔치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눈물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맛있는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곳은 마치 천국 잔치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불평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31,32)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의가 총만한 자들이 모인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 병든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부르심으로 이들을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회개는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재판관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의사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레위처럼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과 운명적인 생각으로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부끄러움이나 망설임 없이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저는 레위와 같이 소망 없고 죄악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983년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두 아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세 살 때 아버지는 갑자기 저희 가족을 버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무 바쁘고 저를 심하게 훈육을 하셔서 저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에게서 사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여자친구가 많았지만 관계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항적인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록 음악을 듣고, 술을 마시고, 포르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무신론자가 되었고 사탄 숭배에 가담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고 평안을 얻지 못한 채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 저는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기독교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은 매우 평화로웠고 저는 그가 가진 평화를 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평화를 찾기 위해 그가 다니는 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악 된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2004년 제가 죄악 된 삶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카라카스 UBF에 초청받아 서요한 선교사님과 1:1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저는 저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제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첫 번째 여름 수양회에 참석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얼마나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상처로 예수님은 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떠났을 때에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린 시절 저를 버린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에서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크게 안아드리고 진심으로 용서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의 죄악 된 삶은 의미 있고 열매 맺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아내와 두 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다.

2011년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파나마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으며 그 이후로 저희는 파나마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레위처럼 저희도 파나마인들에게 저희 아파트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비큐, 피자, 생일 케이크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파나마에서 약 12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레위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죄악 되고 사랑을 갈구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파나마 사람들과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